



위험한 불확실성의 시대, 쓰레기가 되는 삶들

백과 바우만을 경유해 ‘지금 이곳’의 주체를 돌아보기*

류웅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이 글은 유연한 서평의 형식을 차용해 얼마 전 타계한 두 유럽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ich Beck)과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현대사회와 현대성에 대한 예언자적 진단과 해석, 그들의 일련의 저작을 관통하는 주제와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금 이곳’에 던져진 주체들의 삶과 실천, 전략과 대안적 전망을 사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지구화한 신자유주의와 이를 대면하는 개인들의 삶과 분투, 특히 주체들이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거대한 구조적 힘들에 조응하거나 순치하는, 또는 이를 창의적으로 접합하고 전유하는 실천의 양상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채 도래하지 않은 정치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탐문하고 모색하려는 주체들의 실천과 전략에 관한 시론이다.

핵심어: 현대성,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 벡, 바우만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

** wjryoo@hanyang.ac.kr

1. 글로벌 신자유주의와 타자화(他者化)의 문화정치

2016년 11월,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 텔레비전(reality television)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독특한 이력의 기업가이자, 공화당 내에서조차 문제가 취급을 받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최근 경제적 불황의 장기화 국면에서 부상한 미국 내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거부하는 대중의 정서 및 사회 변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트럼프의 포퓰리스트(populist)적 정책과 수사들이 상당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결과란 정치적 해석들이 쏟아졌다. 특히 과거 멜팅팟(melting pot)으로 상징되는 다인종, 다문화, 다원주의적 가치를 지닌 미국 사회에서 그간 사회적 금기나 불문가지(不問可知)로 받아들여졌던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백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특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 유권자들에게 트럼프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우선 이는 타자(他者), 혹은 타자라 여겨지는 대상들에 대한 사회적 상상, 특히 부정적 감정이나 혐오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스트적 정치인의 수사와 공약에 대중이 정서적으로 반응한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는 오늘날의 세계가 지난 30여 년간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의 이론적 자원이자 견고한 담론 구성체로 인식되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동시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과 개념적 틀거리의 등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¹⁾ 트럼프는 신자유주의하 만성적 경기침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규범 때문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던 미국 사회 내 소외된 다수의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대변해 주는 존재라고 볼 수

1) 일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설명할 때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사회과학적 정의로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의 ‘정경들(scapes)’이란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물리적이며 배타적인 경계를 초월해 자유로이 이동하고 월경(越境)하는 사람과 기술, 자본과 미디어, 이미지와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지난 삼십 여 년 간 지구적 층위에서 가속화된 경제와 문화 영역의 변화, 나아가 이와 연관된 정경들이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구적 차원의 금융자본과 테크놀로지, 미디어와 대중문화,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의 유통과 교류, 그리고 소비 역시 일국적 경계를 넘어서는 규모와 이면의 동인들, 특히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TNCs)의 역할과 이것이 야기한 삶과 일상, 그리고 사회적 정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교통과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이들이 자본과 상품, 문화의 전 지구적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생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 이 개념은 최근 다양한 양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지역적, 국가적 층위에서의 배타적이며 수구적 문화정치 및 무차별적인 테러와 난민 등과 연관된 국가 간의 외교 분쟁과 긴장, 갈등 등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인식론적 한계를 노정한다.

있다(이택광, 2016, 5, 16). 그러나 유사한 극우 보수정치의 등장은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그 결과 정도를 달리하며 목격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트럼프 개인의 인기라기보다 미국 선거 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지닌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세계화, 기술발전, 이민 등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조철환, 2017, 1, 27). 이처럼 보편적 지성과 덕성을 갖춘 철인(哲人) 정치인이라 평가되는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해, 돈만 많은 기업가로서 대통령직의 수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성과 덕성은 물론, 시민적 윤리나 인간적 교양마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한참 지난 후에도 납득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트럼프가 승리한 원인을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적잖은 민주당원들과 사회적 소수파들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다. 즉, 기성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오늘날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김종철, 2017, 1, 27).

그간 공고하게 유지되던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또는 환상이 산산이 깨져버린 이유로 멈춰버린 경제성장을 들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원래 반민중성이 내포된 시스템이었지만 그것이 그런대로 작동해온 것은 크게 보면 경제가 성장을 계속해 왔던 덕분이었다. 경제학 용어로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²⁾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성장의 혜택은 불완전하게나마 대다수의 중산층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의 ‘좋은 시절’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는 데에 있다. 일차적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불가결한 ‘변경’(비자본주의적 영역)이 거의 다 소멸된 데 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확장되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한 시스

2)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의 이익과 성장이 촉진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를 포함한 국가경제 전반에도 그 이익과 성장의 수혜가 돌아가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 이론이다.

템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변경의 소멸을 경제의 ‘금융화’로 극복하려는 시도였지만,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그 ‘금융화’는 극소수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는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또는 불평등화로 귀결되고, 정치는 거의 전적으로 부유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김종철, 2017, 1, 27).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국민의 실업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배타적이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여성과 무슬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의 레토릭(rhetoric)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결국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Rust Belt)의 백인 노동자 계층 및 중산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즉, 다수의 미국인들은 불안한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개인의 지위 하락을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탓으로 전가하고, 이들을 타자화하는 프레임을 내세운 극우 포퓰리스트적 정치인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지난 한 세기 제국으로서의 굳건한 지위와 아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미국만의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는 목하(目下) 전 지구적으로 유사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경제적, 국제관계적 문맥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또 다른 예로 2016년 미국 대선보다 몇 달 먼저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³⁾ 결정도 트럼프 현상과 유사성을 지닌다. 영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은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간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유입되었고, 영국의 중산층과 빈곤층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브렉시트에 동의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유럽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IS⁴⁾의 테러 역시 심화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유럽 내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이로 인해 온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IS의 테러는 이슬람에 적대적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장소연·류용재, 2017, 47-48쪽). 이처럼 무차별적인 보복으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암울한 정치적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글은 유연한 서평의 형식을 차용해 얼마 전 타계한 두 유럽의 사회학자⁵⁾이자 사상

3)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유럽 연합 EU의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EU 탈퇴 찬반을 국민투표하고 이것이 가결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4)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라는 이름으로 각종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 테러 조직이다.

가인 울리히 벡(Ulich Beck)과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현대사회와 현대성, 그리고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징후와 문제들에 관한 예언자적 진단과 해석, 전망을 그들이 소개한 이론, 특히 일련의 개념적 자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오늘날 지구화한 신자유주의와 이를 대면하는 개인들의 신산한 삶과 분투, 특히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거대한 구조적 힘들에 조응하거나 순치하는, 또는 이를 창의적으로 접합하고 전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탐문하고 모색하려는 주체들의 실천과 전략에 관한 시론의 형식을 빌어 논의하고 있다.

2. 개인화와 과잉 긍정성, 혹은 신자유주의의 문화논리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하 경제적 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는 문화적 영역에서도 연관된 징후들을 유발한다. 이들은 상이한 듯 보이면서 이러한 체제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와 내파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주체의 전략들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이것들은 한쪽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외국인, 성 소수자 등 일상에서 접하는 타자(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문화정치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하 무한경쟁 사회를 견뎌내는 주체들의 만성화한 소진과 불안의 징후로 드러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채롭게 발현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 및 그러한 양식들의 탄생, 가령 과잉 긍정화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이를 산업화하는 힐링과 여가 등의 소비문화의 부상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자의 경우, 일베와 메갈리아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특정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촉발된 논쟁들이 일상에서 타자성을 지니거나 그렇게 '상상된'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로 물성화(物性化)한다. 가령 이질적 젠더는 물론, 성 소수자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 또는 전라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언어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독설, 나아가 증오의 수사(rhetoric of hatred)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문화정치의 형

5) '위험사회론'으로 유명한 울리히 벡(Ulich Beck)은 독일의 사회학자로 2015년 1월 1일에, '유동하는 현대(성)'에 왕성하게 천착해온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로 2017년 1월 9일에 각각 타계했다. 이 글 역시 두 학자의 대표적 개념적 자원인 '위험사회론'과 '유동적 현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혐오와 배제, 타자화가 일종의 문화, 또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로 최근 지구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혐오의 문제는 과거에도 인종, 종교, 여성, 성소수자, 정치사상, 지역 등 다양한 대상들을 향해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층위에서 다기한 형태로 존재했다(장소연·류용재, 2017, 48쪽, 55쪽).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무거운’ 구조의 문제를 일상에서 마주치는 타자에게 ‘손쉽게’ 전가하고, 대중은 이에 동조하거나 용인하는 희생양(scapegoat)의 문화정치가 한 국가의 지도자 선출은 물론 국가의 정책수립과 운용 등 제도정치에 반영되거나 수렴되는 것이 일종의 지구적 트렌드(trend)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

후자의 경우, 역시 무거운 구조의 문제를 개인화하거나 사사화해 돌파할 것을 권면하는 문화의 부상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유사성을 지니지만 문제는 더 복잡하다. 일례로 울리히 벡(Ulich Beck)은 그의 잘 알려진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과 탐욕스러운 자본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당한 개인과 집단들의 반발로 인해 가속화되어가는 세계의 무질서와 정보사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와 안전망이 무너진 위험사회 속으로 내던져짐을 의미하고, 이는 무수한 주체들의 대안 없는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진단한다. 벡은 마셜 매클루언(Herbert Marshall McLuhan)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global village)’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하게, 오늘날 원전 사고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고 말한다. 즉, 벡의 위험사회란 개념은 위험이 사회의 중심적 현상이 되는 사회를 지칭하고, 이의 핵심적 특징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과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 간의 경계, 객관적 위험 분석과 사회적 위험 인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벡은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들어왔음을 주목해 모더니티(modernity)의 연속과 단절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벡의 ‘위험사회론’은 학문적으로 논쟁을 일으켰고, 현대사회의 탐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Beck, 1986; 김호기, 2016, 9, 7).

벡의 위험사회론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 원전 사고나 환경파괴, 또는 전쟁이나 테러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위험들 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위적 위험들과 불확실성의 증대, 가령 개인의 원자화와 이에서 기인하는 주체의 고독이나 소외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일례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장 높은 수치이다(이주연, 2013, 11, 3). 또한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는 작금의 현상은 ‘헬조선’이나 ‘흙수저’라는 자조 섞인 담론들에서 드러나듯 또 다른 위험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앞서 사례로 든 미국과 유럽의 극우적 포퓰리즘의 부상과 타자로 상상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문화정치가 후기산업사회하 점증하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라는 점에 있어, 백의 위험사회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처에 다른 형식으로 편재한 인위적 위험들이 안전을 기존의 평등이나 민주주의의 가치 대신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시켰다는 그의 전제⁶⁾는 오늘날 상당한 울림을 준다.

이를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 백은 산업사회가 해체되며 이를 대체하는 사회로 ‘성찰적 현(근)대성(reflexive modernity)’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 특징들 중의 하나를 ‘개인화’에서 찾고 있다. 이 개념은 백 자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듯 양가적이라 볼 수 있다. 가령 그는 성찰적 현대화가 일차적으로는 현대화의 토대와 결과,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지식, 즉 성찰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찰적 현대화가 현대화의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대화의 성찰성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찰성이 반성(지식)과 함께 반사, 즉 무지와 예방 효과로 이해되는 반사의 뜻도 포함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이 지점이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와 스콧 래쉬(Scott Lash) 등 다른 성찰적 근대성론자들과 백을 구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기든스와 래쉬는 성찰적 현대화를 단어의 본래 의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성찰’이라는 반성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부작용이나 무지의 의미가 배제되어 있다. 특히 래쉬는 칸트(Kant)에서 시작되고 뒤르켐(Durkheim)과 하버마스(Habermas)를 통해 계승된 계몽사상의 전통에서 있는 성찰적 근대성을 보편자(지식 능력을 갖춘 행위자)에 의한 개별자(현존하는 사회조건들)의 비판을 전제로 하고 이런 점에

6)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시카고, 아틀란타 등의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무슬림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례 없는 과잉 통제와 감시가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 시민이거나 그들을 방문하려 입국하는 가족들마저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해 수갑을 채우고 오랜 시간 구금하는 등의 인권유린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외교적 마찰의 원인이 되는 등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워싱턴의 관문인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이란 출신의 미국 영주권자 어머니를 방문한 다섯 살 어린이까지 억류되었다 4시간 만에 풀려났다. 또한 예멘 출신의 두 형제는 미국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수갑을 찬 채 붙들려 있었고 결국 예멘이 아닌 에티오피아로 돌려보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복구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 역시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거부됐다(심진용, 2017, 1, 31; 박효재, 2017, 2, 6).

서 성찰성이 본질적으로 인지적이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스트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래쉬는 성찰성의 인지적 차원보다는 미학적 차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찰의 과정이 보다 진실보한 근대화의 기능적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 진단한다(Beck, 2007, pp. 213-215; Lash, 1998/2010, 164-165쪽).

또한 기든스는 사회가 현대적일수록 이 사회는 자신의 토대와 구조, 동역학, 갈등 등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가 스스로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이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전통에 따른 행위 대신, 지식에 의거해, 또는 과학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사회구조와 제도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문화는 전통사회의 궁극적인 권위를 배제하며 이는 곧 다종다양한 권위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구조의 제약에서 풀려나지만, 생산된 불확실성의 조건 아래에서 '성찰적 현대화'의 형식과 전략으로 자신의 행위 상황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벡은 불특정한 어느 지식과 의식, 반성, 의사소통, 자기관찰이 현대사회에서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도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지식관을 문제적이라 보고 있다. 즉, 벡은 현대화가 사회의 구조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행위자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관계와 연루된다고 본다. 한 예로 근대화가 어떤 수준에 이르면 행위자가 더 개인화하는, 즉, 구조에 의해 점점 덜 제한받게 되는 경향을 지닌다. 사실상 구조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행위자는 구조에서 점차 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착근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신을 구조적 제한에서 풀어놓아야 하며, 근대화 과정을 능동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Beck, 1986, pp. 19-20; Beck, 2007, pp. 213-215; Giddens, 1998/2010, 133-136쪽).

이러한 개인화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데 나타난 현상으로, 봉건적 예측, 왕, 귀족, 교회, 신분제도 등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됨으로써 시작되고, 자본주의 성립 이후에도 가족, 이웃, 직장, 계급 등의 소속 집단으로부터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원심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후기근대사회에 이르게 되면, 근대 이후 출현하게 된 계급 개념 역시 개인화로 인해 희미해져 간다. 표준화된 완전고용 체계는 유연하고 다원화된 불안정고용 체계에 자리를 내주었고, 사람들의 일생도 과거의 표준적인 계급유형을 따르기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며 책임져야 하는 것(do-it-yourself biography)으로 개별화되었다. 즉, 출생, 교육, 취업, 결혼, 은퇴 등 일련의 생애주기에 따라 정립된 근대사회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무너지면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수정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정지웅, 2016, 10, 4).

이처럼 벡의 위험사회론에서 주목할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위험사회의 도래가 가져오는 개인의 변화다. 즉, 위험사회의 등장은 위험의 개인주의화를 낳는다. 모더니티의 진행 결과 개인은 점차 독립적인 주체로 변모하지만, 그 독립은 새로운 대가, 즉 전문가에 의존하고 개인의 ‘인지적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된다.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규정되었던 생애가 이제 개인 스스로 생산하고 거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생애로 변화하는 개인화, 또는 개인주의화의 증대야말로 위험사회의 새로운 풍경이자 제2의 현대성(second - or reflexive modernity)⁷⁾의 대표적 징후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위험의 개인주의화를 넘어 사회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의 개인주의화로 연결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맥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는 자유나 평등, 인권이나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몰아내거나 주변화한다. 또한 사회적 위험의 개인주의화는 무거운 사회 문제를 더욱 심리학적 성벽의 견지에서, 개인적 부적응, 죄책감, 불안, 갈등, 노이로제,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사적인 것으로, 따라서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병적 징후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불안이 삶의 느낌을 규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Beck, 1986, pp. 151, 160, 170-171; 김호기, 2016, 9, 7; 정지웅, 2016, 10, 4).

그러므로 이러한 글로벌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등장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과잉긍정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일례로 신자유주의하 자기계발 문화이다. 즉, 상기한 벡의 진단, 즉 산업사회의 신분제와 계급사회가 철폐되면서 개인을 돌보던 공동체가 약화되고, 이는 과거 가족이나 국가가 수행하던 거의 모든 사회안전망(safety net)과 부조 기능들이 오롯이 개인에게 부과된 후기산업사회, 또는 신자유주의하 주체들의 분투와 그들 삶의 신산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는 전례 없는 양상으로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극대화되었다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과거 개인이 기대거나 의지하고 있던 정주의 기반과 공동체의 안정성이 급격하게 붕괴되었다는 점, 여기에서 기인하는 불안과 고독감에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잉태한다. 가령, 모든 시행착오나 실패의 원인과 책임,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개인주의화는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이 시장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이는 주류적인 존재 형태들이 자각되기 어려운 고립된 대중시장이며, 미디어를 통해 시작되고

7)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를 바꾸만은 ‘유동적 현대성(liquid modernity)’이라 명명한다.

채택되는 여론, 습관, 태도, 생활양식과 함께 총괄적으로 설계된 주택, 가구, 일상재화의 대중소비이다(Beck, 1986, pp. 216-217). 이러한 문화는 미국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Just Do It”(or “You Can Do It”)이란 광고 문구처럼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도 일단 한번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함을 통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과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정상화한다. 한국 사회 역시 태어나 자라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또는 중간관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헤쳐 살아가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제 메커니즘과 윤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기준법 같은 진짜 삶의 규범을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위험사회의 개인화한 문화는 막연히 ‘꿈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성공해야 한다’는 바람을 집어넣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과 연대에 대한 경멸과 증오도 불어넣는다. 그것은 ‘타인의 욕망’과 자기 경멸을 가르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천정환, 2017, 2, 8).

이처럼 자수성가(self-made)한 사람의 신화가 한 사회의 기율이나 시대정신으로 일반화한 상황에서 연관된 믿음의 체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나 구조적 동인의 중요성을 지우고, 성공에의 의지와 열망, 사적 동기,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고 연출하는 능력과 노력 등 모든 것을 개인의 심리와 개성의 차원으로 손쉽게 환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심리학의 포로’가 되어 사회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과 자신들의 의지력, 개성 등을 복잡다기한 문제들의 효과적인, 혹은 유일무이한 해법으로 과신하거나 이러한 가치들을 몰신화한다.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해야 하고, 누구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실패의 원인은 좋은 전략과 방안, 의지력, 매력적 인격 등의 결핍에 있다는 생각은 현상과 체제 유지를 위한 일종의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이지만, 동시에 이는 사회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누군가에게는 꽤 쓸모 있는 것이다(Berger, 2000, p. 125).

더욱이 이러한 과잉긍정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계발 문화와 거기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누군가의 지적처럼, 우울증 등 병리적 현상으로 고통 받는 주체들이 회피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항우울제, 혹은 일종의 아편과도 같은 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는 우울증 자체의 발본색원(拔本塞源)과 치유라기보다, 고통의 지속화, 내지는 만성화에 대한 일시적 처방이거나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주술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부수적이거나 새로운 문제들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결국 그칠 줄 모르고 더욱 확장된 자기계발에의 끊임없는 매진과 몰입 등 주체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과 불안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 또는 재귀(再歸)를 낳는다.

3. 유동하는 현대사회의 쓰레기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역시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억압적 근대화가 낳은 개인주의화의 문제에 관해 벡과 유사하면서도 그 강조점과 결에서 보다 미시적이고 농밀하게 사회와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부적응한,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의 개인들 및 그들의 삶에 관해 일관된 어조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다.⁸⁾ 바우만은 우선 현대성에 관해,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감각’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되는 영속적 비상사태라 정의한다. 가령, “우리가 없으면 대홍수가 난다, 예방 조치나 선제공격이 없으면 파국이 온다, 미리 설계된 미래 말고 달리 택할 수 있는 길은 혼돈의 지배뿐이다, 인간적인 것을 간섭 없이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이 현대성은 설계 강박증과 설계 중독에 빠진 상태이다(Bauman, 2004, p. 64). 이는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하의 미국 내 반외국인, 반이민 정서를 벡(Beck)의 위험사회론만큼이나 진중하고 정치하게 설명하는 틀거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직조된 질서에 대한 전망, 혹은 강박은 필연적으로 자기 등지로부터 혼돈이라는 괴물을 소환한다. 혼돈은 질서의 분신이며,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질서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어떤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잉여화한 주체들, 혹은 쓰레기가 되는 삶들을 낳는다. 이는 조르조 아감벤이 묘사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 즉, ‘신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인간의 법정 밖으로 내쫓긴’ 존재와 유사하다. 호모 사케르의 삶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나, 신의 관점에서 보나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러므로 호모 사케르를 죽이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었고, 호모 사케르의 생명은 종교적 제물로도 쓰일 수 없었다. 오직 법만이 부여할 수 있는 인간적, 신적 의미를 박탈당한 호모 사케르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를 현대의 세속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의 호모 사케르는 어떤 실정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규에 선행하는 인권도 보유

8) 바우만의 일련의 저작들, 특히 ‘유동성(liquidity)’을 주제로 하는 시리즈인 〈액체근대(Liquid modernity)〉(2000), 〈리퀴드 러브(Liquid love)〉(2003), 〈모두스 비벤디(Liquid life)〉(2005), 〈유동하는 공포(Liquid fear)〉(2006), 〈유동하는 시간(Liquid times)〉(2007) 등의 저작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개념과 일부 논의의 유사성 내지는 중첩으로 인해 자기표절(self-plagiarism)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우만의 유동성 개념은 후기 현대사회의 다양한 동인과 국면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은유적 표현(metaphoric expression)으로, 경제와 테러, 불평등과 기후변화는 물론, 불안과 고독, 소비와 유행 등 사회적이며 사적인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호모 사케르는 현대에 들어와 질서정연한(법을 준수하거나 규칙이 지배하는) 주권 영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인간쓰레기의 일차적 범주이다(Agamben, 1995; Bauman, 2004, pp. 65-68).⁹⁾

이러한 인간쓰레기는 가족과 함께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려다 바다에 빠져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배기 소년, 아일란 쿠르디(Alan Kurdi)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경제적 난민일 수도 있고, 미국 내 공항에 억류되어 한동안 그리운 가족이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편을 겪어야 했던 중동 출신의 합법적 시민들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기성 언론과 탐욕스런 월가(Wall Street)의 지지를 등에 업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가 대표하고 표상하는 엘리트 계층에 반기를 들어 트럼프를 지지하고 선거에서 그에게 투표했지만, 실제로 그 삶이 나아지기는 난망한 수많은 미국의 노동자 계급이나 중산층일 수도 있다.¹⁰⁾ 또는 장기화한 경제 불황의 이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몇몇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못한 무수한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세대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과 노동, 직업 훈련,

9)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벌거벗은 삶(sheer life) 등 일련의 개념적 자원과 논의들에 관해 현실 변화의 가능성이 부재하거나, 나아가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회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아감벤의 논의 중 모호하거나 적극적으로 발화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로 그에게 담론의 영역에서 협상이나 적대, 또는 투쟁의 공간이 부재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주의의 그림자는 백이나 바우만에게서도 그 정도를 달리하며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혐의는 조망과 비전, 경험과 해독의 다의성에 따라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한 것임에도, 수많은 비판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dilemma)와 유사한 상황, 보다 엄밀하게 말해 그러한 이론들의 본성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즉, 이는 구체적 대안의 제시보다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제 제기, 당대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비롯한 모든 친숙하고 관습적인 것들에 대한 의식적인 ‘거리두기’, 혹은 ‘낮설게 하기’라는 비판이론의 기능과 존재근거에서 연유하는 것일 듯하다. 동시에 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비판이론이 안고 있는 본질과 속명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가령, ‘대안 없는 비판’이나 ‘해법 없는 비판’이라는 비판이론에 대한 과잉의, 혹은 인상 비평적 비판에 대해 비판이론이 담지하고 있는 본원적 속성과 기능, 가령, “쓸모없음의 쓸모”나 칸트(Kant)식으로 ‘부동(不動)의 동자(動者)’라는 실천적 정체성에 대한 무지나 피상적 이해, 또는 의도적 평가절하나 확증편향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반(反)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아감벤은 물론, 푸코와 지젝, 백과 바우만 등 비판이론(가)의 회의주의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한 자기 성찰, 그리고 심연을 알 수 없는 철저한 추락과 실패, 절망과 분노의 체험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경쟁과 쇄신을 위한 투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월가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와는 달리 집권 후에는 월가 출신 인사들을 내각에 대거 발탁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완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친(親) 월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2월 3일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어렵사리 만든 규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월가(Wall Street) 개혁을 강조했던 점을 거론하며, “월가 개혁을 한다더니 월가를 위해 일하는 트럼프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김근철, 2017, 2, 6).

어느 것에도 참가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조어)족,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몇 해가 될지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학교와 도서관, 또는 고시촌을 떠날 줄 모르는 한국 사회의 취업생(취업준비생)이나 장삼이사(張三李四) 흠수저들 일수도 있다.¹¹⁾ 또한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직업 전선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이 오랜 여생을 영위해야 하는 수많은 노년 세대는 일찍 죽는 위험보다는 장수에 수반되는 사회적 위험(Kang, 2012, p. 22, p. 30)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부터 무수한 주체들의 고독과 불안이 생성된다. 이러한 고독과 불안의 정서는 대개 상실감과 불운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해 조성된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내막을 모른다. 언제 어디에서 다음 번 재난이 닥칠지,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그러한 격변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알 도리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생긴 괴로움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주요 산물이다. 국가 권력은 불확실성을 박살내기는 고사하고 진정시키기도 힘들다.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불안의 초점을 손에 닿는 대상으로 다시 맞추는 것뿐이다. 손을 쓸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적어도 그들이 다루고 통제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Bauman, 2004, p. 124).

그래서일까? 트럼프 정권의 문제적 외교정책들은 실제로 미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직면한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용기 있는 대면과 발화 대신, 무고(無辜)하며 무연(無緣)한 ‘상상의 적(imagined enemy)’들을 내세워 복잡다기한 문제들의 원인과 결론을 뒤섞어버리고 이를 마술적으로, 특히 일거에 해결하려 하는 이유 말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해 오직 그러한 환상만을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고 이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공학이자 마치 리얼리티 쇼(reality show)에서나 등장할 법한 가상현실과 이를 차용한 통치 행위, 혹은 이미지 정치(image politics)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 말이다.¹²⁾ 이는 기존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 이론들에서 세계화가 과거와

11)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지고,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은 물론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목도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들 간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세계 최상위 부자들과 세계 최하위 빈자들 간의 간격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각국 내의 소득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산 계급들의 광범위한 ‘프리카리아트’로의 전락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리카리아트(precariat)란 ‘불안정한(precari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총칭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등장한 신노동자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3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Bauman, 2013, pp. 20-22).

는 비교할 수 없이 국민국가(nation-state)의 입지와 역할을 현저하게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나 국방은 물론 경제와 문화, 나아가 삶과 생활세계의 영역에서도 개별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특수한 사례들과 그러한 대중적 정서에 급진적인 방식으로 편승하거나 이를 포퓰리스트적으로 추동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협화음이며, 이는 중국에 예기치 못한 파국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의 점증하에서 쓰레기, 혹은 잉여가 되는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체계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용인하거나 순응하는 가운데, 생명을 지속하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분투한다. 그중 하나가 여가와 소비문화이며 이는 미디어에 의해 매개 및 확장된다. 이는 과거 종교나 제례, 혹은 축제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구원의 매개자이다. 가령 옛날 신전이 수행했던 역할을 현대에는 욕망의 소비 공간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신전들에 모신 신이 세칭 소비의 신이다. 1852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점한 세계 최초의 백화점 봉 마르세를 두고, 에밀 졸라는 “백화점은 현대의 신전이다”라고 정의했는데,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나라들에서 예외 없이 실현되었다. 대량문화와 대중소비 시대의 최고신인 ‘지름신’은 그 신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계율이나 금기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신을 모시는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 투명봉투 따위에 넣을 현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도 없다. 이 신전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으며, 그 안에서는 아무도 양심을 굶는 따분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소비문화는 유연하면서도 집요하게 ‘취향의 정치’, 또는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의 얼굴로 신자유주의의 탈(脫)정치적이며 자기통치적 속성을 자연화한다. 이는 바우만이 현대사회에서 모더니즘이 몰락하면서 ‘차이 그 자체’와 그것의 축적만이 남았다고 한 진단을 소환한다. 바우만은 오늘날 차이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세계의 쇠퇴하는 모든 지역의 거리 모퉁이마다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Bauman, 2011, p.

12)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반(反)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을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월말에 전격 해임했다. 이를 두고, CNN에 출연한 한 패널은 “백악관이 리얼리티 쇼로 변했다”고 논평했다. 이는 트럼프가 과거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NBC의 리얼리티 쇼 ‘견습생(The Apprentice)’의 유명한 대사였던, “넌 해고됐어”(You are fired)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에 빗댄 것이다(조희준, 2017, 2, 1). 이를 두고 최근 미국 언론과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우리 모두 해고됐어”(We are all fired)라는 자조 섞인 유머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는 가깝게는 트럼프 정권 하, 미국 대중의 엄혹하고 힘겨운 일상을 풍자하는 패러디(parody)이지만, 일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그늘에서 일상적으로는 피로와 소진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추방된 모든 잉여적 주체들, 이 글의 제목이 차용한 바우만 식 표현으로 ‘쓰레기가 되는 삶들(wasted lives)’의 비참함을 설명해 주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129; 전우용, 2017, 1, 31). 이러한 개인화한 상상의 해결책은 바우만의 사유가 시종일관 상당한 비중을 두고 꾸준히 제기하며,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바우만은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탓에 이러한 개인적인 삶의 모순들을 집단적으로 빚어내거나 공모 관계에 있는 사회 공간에서 주의를 돌리고 자신들이 처한 비극의 원인을 명백한 어떤 것, 따라서 개선 가능한 어떤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곤경의 복잡성을 애써 축소하려 한다고 일갈한다. 이는 이러한 체제의 모순에 대한 전기적인 해결책들이 없기 때문이며,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적 해결 방안이 부족한 것을 상쇄하기 위한 마술적인 상상의 해결책이 필요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결책이 상상에 의한 것이든, 진정한 것이든, 모든 해결책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 과제나 책임에서 ‘개인화’와 한편이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개인들이 비록 짧은 순간이거나 그들의 두려움을 집단적으로 의지할 어떤 개별적 말뚝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희생양을 환영한다. 그 희생양은 사생활이 엉망인 정치가, 비열한 거리와 거친 구역들을 거니는 범죄자들, 혹은 우리 안의 이방인일 수도 있다. 또는 상상의 해결책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욕망, 가령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기인하는 피트니스(fitness), 신용 카드 사용과 할부 구매의 일반화 및 이로 인한 외상 거래와 빚의 급증 등 어느덧 사용가치를 넘어 강박이나 중독으로 바뀐 쇼핑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날카롭게 신경을 건드리는 불안과 괴롭고도 숨 막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힘겨운 투쟁이다. 이처럼 소외와 불안, 혼돈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몰신화한 스펙터클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이러한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나 공동체의 가치, 시민사회의 붕괴에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 채워지기 어려운 개인적 나르시시즘과 환상에 집중하고 탐닉하도록 하는 정치적 임무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와 진짜 공동체는 축소되며 시간에 쫓기는 이 세계로부터 추출된 감정은 소비 가능한 것들에 재투자된다(Bauman, 2000, pp. 63, 130; Bauman, 2004, p. 203, 238; Berger, 2000, p. 131).¹³⁾

13) 이러한 소비와 여가, 힐링과 자기계발 문화에 관해 이를 전유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다 온정적인 시선과 관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가령 자기계발과 힐링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왜 싸잡아 이를 사기라고 해야 하는지, 또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개인들에게는 일시적인 위로나마 소중한 것(강준만, 2014, 82-83쪽)이라는 문제 제기는 신자유주의하 유사하게 반복되는 개인화한 문화들이 단순히 주체의 ‘구별 짓기’나 ‘차이의 문화정치’를 넘어 ‘권능화(empowerment)’, 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동시에 그렇기에 더욱 이러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의 개인화한 해법과 각자도생식의 주체의 전략과 삶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환기가 필요한 것일 듯하다. 이를 두고 평범한 소시민에게 운동가나 지식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 요구할 수 없다(강준만, 2014, 83쪽)는 주장은 이들을 본질적으

문제는 친숙하고 낭만화한 일상성으로 포장되어 좀처럼 위험이라 인식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편재하고 유동성이 극대화한 현대 사회에서, 잉여가 되는 무수한 주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과 용기 있게 대면하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본가도 아니면서 자본가의 언어를 내면화해 발화하는 주체들은 어떻게 이를 낫설게 하거나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새롭고 참된 그들만의 언어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인가? 타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 동안만 타인에게 유용하며 더 이상 그러한 이용 방식에 맞지 않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나 파놉티콘(panopticon)(Bauman, 2004, pp. 240-241)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보다 인간 적이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체제하 산재한 무수한 위험과 배제를 개인화하는 전략들에 맞서, 우리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끔찍한 악행을 국가의 명령 이라는 내면의 정당화를 통해 의심 없이 수행했던 평범하고 인간적인 얼굴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Arendt, 1963)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체계와 역사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의 규모나 범위는 물론 나의 능력 저 너머의 문제이다. 다만, 이는 이 글이 애초에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고 대답을 구하고자 했던 공간에서 필연 적으로 조우하거나 중첩되는 문제들이기에 향후 학문공동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로 화해하거나 소통하기 어려운 양자대립적 존재들로 규정하며 개인은 물론 사회의 변화를 차단할 위험성을 지닌다. 더욱이 이러한 시각은 지식과 지식인, 또는 운동가의 역할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거나 축소해 중요한 영역에서의 목소리와 실천들을 폐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모두 문제적이라거나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자기계발과 힐링을 통해 극소수의 개인적 성공담과 미담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로 격상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거시적, 구조적 문제들이 축소되거나 은폐되며 새로운 신화, 혹은 이데올로기가 제조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비판, 그리고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또한 ‘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위축되는 동시에, 이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개인들이 겪게 되는 산적한 문제들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통치성이 일종의 시대정신이나 지식의 형태로 권력화한 현실에서, 이에 균열을 내고 대안적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항담론을 조직할 필요성은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하나의 예로 동성애나 페미니즘(feminism), 인종이나 지역 차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나 정체성 정치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비록 한시적으로는 강한 저항이나 반동적 움직임에 맞닥뜨릴지라도, 우리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욕망들에 대해 비로소 ‘함께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사회적인 것의 복원과 창발을 사유하기

그렇다면 백과 바우만이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진단하고 답을 구하고자 했던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 사회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의 개인화를 어떻게 대면하고 그에 대한 처방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과거 산업사회의 사회적 삶과 인간(형)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신자유주의적 기업사회의 자장에서 점점 고립되고 원자화되어 가는 경제적 주체들, 그 결과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잉여들이 확산되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아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복원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 내는 가운데 사회적 해법을 모색할 때이다.

이는 힐링이나 자기계발 문화에서 암시하듯, 누구가로부터 어떤 충고나 조언을 들었든, 또는 어떤 삶의 고난과 좌절을 겪었든 간에 개인의 구원이나 행복이 자신만의 자유로운 결단과 실천,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공통감각의 복원을 통해 그 긴 여정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시대정신은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피로와 소진을 구조화, 나아가 사회화한다. 또한 이는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과 불안의 심연으로 추락시킨다. 이러한 개인화의 통치성과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정상화한 사회는 바우만의 표현을 빌자면 냉혹하고 각박한 사냥꾼의 세계이다(Bauman, 2000). 사냥꾼이 되어 끝없이 펼쳐진 사냥터에서 짐승들을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냥감이 되고 만다. 즉,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는 죽이거나, 또는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해법, 또는 대안적 전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이 글의 의도와 목적을 넘어선다. 더욱이 그 구체적 대안에 대한 정책적, 문화적 밑그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현실에서 추동해 내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다만 우리는 아주 가끔씩 일어나지만, 그로 인해 큰 경이와 충격을 체험하게 하는 예외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단초를 통해 이러한 꿈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채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좀 더 명징하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두어야 하겠다. 가령, 이러한 불확정적이고 미완의 맹아는 2016년 말에 시작되어 2017년 초까지 이어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국정농단에 연이은 대규모의 촛불집회와 평화로운 시위의 형식으로 대응했던 창의적이며 용기 있는 주체들의 집합적 움직임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함의하는 정치적 가능성은 권력을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또는 제도적 힘에

집중화되거나 닫힌 체계로 보지 않고, 시민들의 희망과 분노, 그들의 사회적이며 집단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이를 토대로 과거 강하고 단단한 것이라 여겼던 권력에 불가역적인 균열이 생기거나 안정적 지형이 변화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러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권력, 또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이고 다양한 권력들이 작용하는 복합적인 수준과 층위의 결합체로 보는 미셸 푸코의 시각과도 맞닿는 지점이다. 즉, 푸코가 현대사회를 규율 사회로 볼 때, 여기에서의 규율이란 기구나 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것은 권력의 한 유형으로서 기구들과 제도들을 가로지르면서 그것들을 연결시키거나 복합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종의 테크놀로지이다. 또한 푸코는 권력이 본질을 갖지 않으며, 조작적인(operational) 것이고, 속성이 아니라 관계라고 본다. 나아가 그는 권력이 억압하기 전에 특정한 실재를 만들어 내고, 이데올로기화하기 전에 진리를 생산한다고 본다. 이는 자기배려나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포괄하기도 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들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기에서 실천적 진리, 대안적 진리, 처방적 진리가 발아하고 움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왜냐하면 지식을 생산하고 담론을 증식시키고 그것을 작용지점으로 삼아 권력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의 출현과 작용조건은 힘 있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의지에 들어 있는 모든 권력의 전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Foucault, 1995; 양운덕, 2011, 63, 69쪽).

그러므로 새롭고 창의적인 권력을 꿈꾸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전취(戰取)해 나가기 위한 공감과 연대, 실천의 경험은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과제이다. 물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무수한 개인들의 희원과 갈망이 동질적인 것일 수 없기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광장에 모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적폐와 부조리에 분노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또는 2016년 구의역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나 같은 해말 강남역에서 무고하게 살해된 여성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촛불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뿐 아니라, 탄핵된 대통령을 두고 “우리 근해 불쌍해 죽겠네”라거나 “우리 목숨을 바쳐 대통령을 지켜내자”는 지지자들의 외침과 정서적 유대 또한 분명하게 목도하였다.

김수아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공감은 타인의 목소리를 완전하게 대변하는 것도, 내가 그 타인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경험을 전유하려고 하지 않고,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김수아, 2015, 363쪽). 가령,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유족 탓에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든 경제

프레임이나 국가의 품격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수구적 위기담론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분노하고 저항하며 공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이나 공공적 사건,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을 단순히 단기적인 비용과 이익 분석 등의 경제 지표나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로 끊임없이 환원하려는 경제적 담론들, 그러한 정치 문화와 풍토를 바꾸고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는 좋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상상은 요원한 일임을 느끼고 함께 발화하는 일은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는 성찰적 내면이 결여된 채 안락과 편리가 주어진 육과적(肉塊的) 삶과 생존에 대한 만족만을 느끼며 타인의 욕망에 의해 자신의 욕망이 계획되고, 추동되고, 소비되는 속물적, 타인 지향적, 자본주의적 자아와 삶(김홍중, 2011, 58쪽)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창의적으로 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민과 공감, 동일시와 연대를 위한 사회적 상상과 노력이 반드시 개인의 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적 개인이며, 모든 개인은 독자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이다. 즉, 개인은 보편과 특수이 동시에 통용되고 교차되는 배리(背理)의 범주이며, 양자택일의 논리는 이 배리의 범주나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이러한 배리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개인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라는 양극으로 용해되어 버린다. 개인주의로 용해된 개인은 ‘행복’이라는 ‘가상’에 집착하는 주체가 되며, 집합주의에 용해되어버린 개인은 진리나 대의를 위해 행복을 저당 잡히는 금욕주의적 주체가 되고 만다(노명우, 2010, 89쪽). 이제 이러한 양자택일적 관계를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가 양립할 수 있고 선 순환할 수 있는 상상력, 즉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개인과 개인의 새로운 관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 글이 논의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들, 특히 바우만의 은유를 빌어 기존의 고체적이고 딱딱한 것들이 빠르게 액화하거나 증발해버리는 상황에서 상시화하고 만성화한 개인들의 불안과 피로, 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각자도생의 개인화한 삶의 양태가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등극한 오늘날, 어느새 학문적 키치(kitsch)가 되어버린 연대와 협력, 공감과 정동(情動·affect) 등의 개념을 규범적, 당위론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과 별개로, 현실에 적용하고 구체적 쓸모로 만드는 일은 어렵고도 지난한 일이다. 가령 이 개념들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함의와 그 실천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내포하는 개념적 모호성이나 상당한 수준의 추상성으로 인한 현실 적용력의 문제, 나아가 이를

주장하는 이론가의 편견과 한계 등은 이를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는 운동의 지침으로 삼고 동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혹은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일정한 간극을 노정하며,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인식론적 신기루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예로 근래 정동(情動)이란 용어가 한국의 진보적 지식 담론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서도 활발하게 소개되고 관련된 논문들도 양산되고 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서구에서 유입된 개념이나 이론적 자원들과 유사하게 번역어로서 공통어를 갖지 못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빠른 속도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학과 사회학, 문화이론 등에서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이나 그 내면까지 분석해 장차 도래할 미래의 가능성을 응시하려는 이론의 부재와 그러한 갈증에 목말라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동 개념을 외래에서 일방적으로 이식되었거나 하나의 전체, 혹은 총체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이것이 더욱 복잡해진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라보는 담론적 성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정동은 단순한 감정과 달리 몸과 마음을 동일하게 가리킨다는 차원에서 이 개념을 경유해 신자유주의하 노동이나 자본을 분석할 때 감정의 자본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분리할 수 없이 결속된 신체적 자본화의 문제를 지시하는 생명정치적 함의를 끌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동의 인지적 측면이나 본질적 정의에 과도하게 천착하기보다는 그것의 유용성이나 기능을 상상하는 생산적 작업으로 이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박현선, 2016, 70-71쪽, 73쪽; 최익현, 2016, 7, 6).

반면, 최원이 지적하듯, 정동과 관련된 ‘정서 이론’이 국지적 이론의 영역으로 재위치된다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다른 전제 위에서 재구성된다는 조건하에서,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나아가 인식론적이며 사회존재론적인 차원을 포괄적이며 총체적으로 다룰 작업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하나의 예로 기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이나 알튀세르(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을 오늘날의 상황과 문맥에 부합하게 재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이데올로기를 개인들이 실재 존재 조건에 대해 맺는 상상적 관계를 가공하고 채널링(channeling)하고 통제하는 사회적 실천, 다시 말해 개인들의 상상에 개입해 들어오는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론적, 실천적으로 전유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경제나 정치 등 다른 사회적 실천들과 역사적으로 접합되어온 방식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 그 접합이 해체되거나 새롭게 조직되는 방식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

되는 다양한 대중의 실천 및 투쟁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지 정서나 정동에 대한 연구로 환원될 수 없다(최원, 2016, 111-112쪽).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백과 바우만의 성찰적이며 회의주의적 현실 진단과 비판적 작업은 빠르게 인문 사회과학의 학문적 트렌드나 키워드로서 충분한 성찰성과 맥락화, 그리고 지역적 층위와 개별적 구성원들이 맞닥뜨린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합 및 재전유의 과정이 결여된 채 남용되기도 하는 정동이나 다른 포스트모던적 사유들의 한계에 대한 인식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유와 이론화 작업들의 지류나 일부가 되어 이들을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추동하는 유용한 실증적 토대, 또는 경험적 화두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오늘날 개인들은 세넷(Sennett)이 적절하게 진단하듯 그들 자신들의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 친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애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단지 그런 개인적 충동만이 아니라 사회의 부재도 함께 의미한다. 인류의 모든 문화에서 의례가 맡은 역할은 공유된 상징적 행동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바깥으로 돌림으로써 불안을 덜어주고 해소시키는 것인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의례적 연대를 약화시켰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여러 새로운 형태는 단기적 노동과 제도적 파편화를 강조한다. 이런 시스템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상호 지원적인 사회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 일례로 서구에서 엘리트와 대중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불평등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더욱 현격해진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운명을 누릴 여지는 갈수록 적어진다. 특히 경제적 위기하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내하도록 내몰리는 상황이니, 이런 여건하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대하거나 이를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깊이 협력할 능력이 있고, 잔혹한 시대가 이러한 우리의 능력을 전부 지워버리지 못할 것(Sennett, 2012, pp. 441-442)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3월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신속한 구속 수감으로 귀결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과 촛불 정국을 두고 바우만의 지적처럼 분노한 대중이 복잡다기하고 구조적인 비극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것을 ‘마녀사냥’ 하듯 한 개인에게 돌린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것이 이례적이며 역동적인 현재 진행형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격변 속에서 주체들이 이러한 단순성에서 벗어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구조의 문제를 비로소 사유하고 발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¹⁴⁾이며 이러한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인식과 연대를 위한 공감과 협력, 혹은 새로운 관계의 경험은 우선 인간의 소외와 차별, 불평등과 불의, 부조리와 구조적 악에 대한 푸념이나 불평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 내기’를 통한 용기 있는 분노와 일상에서의 끈기 있는 실천을 통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닉 콜드리(Nick Couldry)가 논구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련의 정치적 변화와 이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또한 그러한 일상의 공간과 시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단적 내러티브(narrative)를 조직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실천으로서 목소리는 체화되며 그런 목소리의 맥락은 종종 다른 신체의 존재이다. 가령 말하거나 기억하는 경우, 이야기를 교환할 기회, 해석이라는 공유된 행위와 같은 것이 그러한 맥락을 이룬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체제나 구조에 대한 저항 담론이나 저항의 문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거나 이 과정에서 대항 합리성의 구축(Couldry, 2010, pp. 238-240)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러한 통찰력은 상당한 인식론적, 실천적 유용성을 담지한다.

수많은 외신들이 찬탄해마지 않았던 평화로운 광장의 천만 촛불과 그 동력은 삶과 일상으로 전이 및 확장되어 직장과 학교, 가정 등 그간 우리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착근한 극단적 위계와 폭력이란 적폐와 권위주의 문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 깊숙하게 침윤된 타자 지향적이며 물신화한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욕망과 스노비즘(snobbism)을 담담하게 응시하고 교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현장과 생활세계의 민주주의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장 정치와 직접 민주주의에서 얻은 소중한

14) 물론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의 탄핵과 이 과정에서 대중의 창발적 저항, 그리고 이후 치러진 이른바 ‘장미대선’의 결과로 인한 새 정부의 출범은 유럽과 미국, 일본과는 표면적으로 이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경로를 노정하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변화의 특수성을 들어 이를 지구적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 반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 수사와 관련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이래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거센 탄핵 여론에 직면한 것, 그리고 2017년 5월 치러졌던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정당 ‘국민전선(FN)’ 마린 르펜에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은 각 국가와 지역이 처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회적 상상, 혹은 위기의식,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추동하려는 정치적 열망과 실천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드러냄을 보여주기도 한다.

경험과 자신감을 제도권이나 정당 정치를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동력으로, 더불어 양자 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와 견제, 협업과 공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와 사회 문화적 가치로 떠오르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소명으로서의 공동체적 삶, 즉 참여자들 모두가 동등한 입지나 위치에 서 있는 정치적 공동체(Arendt, 1963)를 꿈꿀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타인을 향해 내던지기 하고 끊임없이 말 걸기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권능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실천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또는 개인들이 관계의 가치와 그런 관계의 한계를 모두 실현해 내는 과정으로서, 보다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Sennett, 2012, p. 432; 류용재, 2017, 4, 30)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 강준만 (2014). 왜 자기계발과 힐링을 사기라고 하는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실천’. 〈인물과 사상〉, 통권 200호, 81-85.
- 김근철 (2017, 2, 6). [트럼프 논란 트위터 트러블, 〈아시아경제〉, 1면.
- 김수아 (2015). 여론은 흐른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론’이라는 담론 구성. 〈문화과학〉, 통권 84호, 342-369.
- 김종철 (2017, 1, 27). 트럼프의 등장과 민주주의. 〈한겨레〉, 22면.
- 김호기 (2016, 9, 7). “위험이 현대사회 중심 현상”...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적 반성 촉구. 〈경향신문〉, A16면.
- 김홍중 (2011).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 노명우 (2010). 1968년 이후, 개인이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 〈문화과학〉, 통권 61호, 78-95.
- 류용재 (2017, 4, 30). 촛불의 시대정신과 촛불 이후의 사회. 〈호모 쿨투랄리스〉, 2017-C9호. URL: http://peaceinstitute.hanyang.ac.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9
- 박현선 (2016).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통권 86호, 59-81.
- 박효재 (2017, 2, 6). 미 연방항소법원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경향신문〉, A1면.
- 심진용 (2017, 1, 31).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5살 아이까지 억류... 미국 공항 ‘아수라장’], 〈경향신문〉, A2면.
- 양운덕 (2011). 〈미셸 푸코〉. 파주: 살림출판사.
- 이왕구 (2017, 1, 27). [36.5°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 22면.
- 이주연 (2013, 11, 3). [데스크칼럼] ‘내 편이 있다’. 〈가톨릭신문〉, 23면.
- 이택광 (2016, 5, 16). [이택광의 왜? 트럼프 현상과 ‘정치적 올바름’. 〈경향신문〉, A29면.
- 장소연 · 류용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권 1호, 45-85.
- 전우용 (2017, 1, 31). 지름신의 시대. 〈경향신문〉, A29면.
- 정지웅 (2016, 10, 4). 성찰적 근대화와 장애인의 미래. 〈함께걸음〉. URL: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6>
- 조의준 (2017, 2, 1). 美선 “장관 해고, TV쇼냐?”... 英선 “트럼프 오지마라” 160만 서명. 〈조선일보〉, A3면.
- 조철환 (2017, 1, 21). 미국, 불확실성의 트럼프 시대로. 〈한국일보〉, 1면.
- 천정환 (2017, 2, 8). [정동칼럼] ‘라라랜드’를 거부하며. 〈경향신문〉, A31면.
- 최원 (2016). ‘정동 이론’ 비판: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과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통권 86호, 82-112.
- 최익현 (2016, 7, 6). [문화비평] 포스트잇 추모가 불러낸 ‘정동(情動)’. 〈한국일보〉, 21면.

- Agamben, G. (1995). *Homor sacer: Il portare sovrano e la nuda vita*.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rendt, H. (1963).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김선옥 (역)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파주: 한길사.
-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이일수 (역) (2010). 〈액체근대〉. 서울: 강.
- Bauman, Z. (2004).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정일준 (역)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서울: 새물결.
- Bauman, Z. (2011). *Culture in a liquid modern world*. 윤태준 (역) (2013). 〈유행의 시대: 유동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파주: 오월의 봄.
- Bauman, Z.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안규남 (역)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파주: 동녘.
- Beck, U. (1986).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Beck, U. (2007). *Weltrisikogesellschaft*. 박미애 · 이진우 (역) (2010) 〈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길.
- Berger, A. A. (2000).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류춘렬 · 김대호 · 김은미 (역) (2003). 〈커뮤니케이션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ouldry, N. (2010). *Why voice matters*. 이정엽 (역) (2015).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 신자유주의 이후의 문화와 정치〉. 파주: 글항아리.
- Foucault, M. (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NY: Random House.
- Giddens, A. (1998). Living in a post-traditional society. In A. Giddens, U. Beck, & S. Lash (Ed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modern social order*. 임현진 · 정일준 (역) (2010). 탈 전통사회에서 산다는 것. 〈성찰적 근대화〉 (90-162쪽). 파주: 한울.
- Kang, S. (2012). *Zoku nayamu chikara*. 송태욱 (역) (2012). 〈살아야 하는 이유〉. 파주: 사계절.
- Lash, S. (1998). Reflexivity and its doubles: Structure, aesthetics, community. In A. Giddens, U. Beck, & S. Lash (Ed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modern social order*. 임현진 · 정일준 (역) (2010). 성찰성과 그것의 분신들: 구조, 미학, 공동체. 〈성찰적 근대화〉 (163-240쪽). 파주: 한울.
- Sennett, R. (2012).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 (역) (2013).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서울: 현암사.

최초 투고일 2017년 2월 8일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3일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28일

Abstract

An Era of Dangerous Uncertainty and Wasted Lives

Focused on Beck's "Risk Society" and Bauman's "Liquid Modernity"

Woongjae Ryoo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wo late European sociologists and their series of theoretical concepts. Specifically, this essay analyzes the life and practice, various strategies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of the subjects 'here and now.' For this, this essay focuses on the way the subjects accept and harmonize, or creatively articulate and appropriate the structural forces, including economic and political powers in their everyday lives, and their active inquiry in seeking for progressive political and social possibilities, and their own empowerment, yet to be realized.

Keywords: modernity, globalization, neoliberalism, Beck, Bauman